

중앙아시아의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 확대

강명구(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연구위원)

작성일: 2013년 8월 16일

■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1위국으로 부상

-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중국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
 -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에 213억³m³의 PNG(Pipeline Natural Gas)를 수출, 이는 2012년 중국 총 천연가스 수입 414억³m³의 51.4%로 1위를 차지, 2위는 카타르로 16.4%를 차지(중국은 카타르로부터 액화천연가스(LNG, Liquefied Natural Gas)를 수입)
 - 투르크메니스탄의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은 2009년에 결정,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1,833km의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
- 투르크메니스탄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천연가스를 수출을 추진하고 있음.
 -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천연가스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, 2012년 40억³m³¹⁾를 수출하였으며, 2013년에는 100억³m³을 수출할 계획에 있음.
 -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카자흐스탄도 자국의 서쪽에 위치한 가스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을 시도

■ 2012년 중국의 가스 수입 동향

- 2012년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1,486억³m³이며, 이중에서 중국내 생산은 72.1%인 1,072억³m³, 수입은 27.9%인 414억³m³
 - 2012년 중국내 천연가스 생산은 1,072억³m³로 2011년 1,027억³m³에 비해 4.2% 증가, 2008~2012년 연평균 생산증가율은 9.1%
 - 2012년 중국의 총 천연가스 수입은 414억³m³이며, 이중에서 PNG 수입은 214억³m³이며, LNG 수입은 200억³m³임

1) 2013년 6월에 발표된 BP의 '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'에는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 이외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2억³m³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발표

- 2012년 중국의 PNG 수입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99%, 기타 중앙아시아로부터 1%를 수입하고 있음.
- 2012년 PNG 수입은 214억m³로 2011년 143억m³에 비해 49% 증가, 2011~2012년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46%

2012년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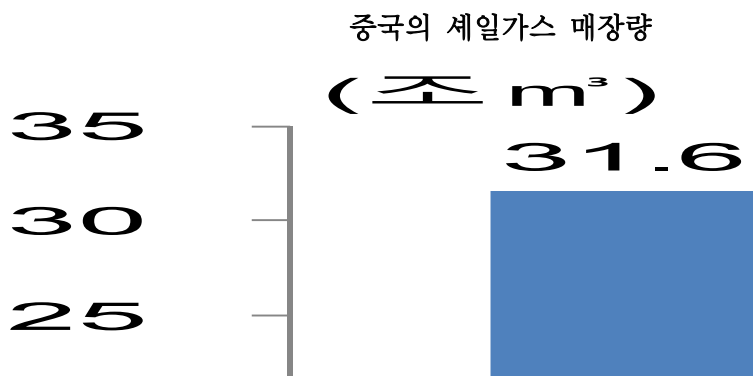
단위: 10억m³, %

	투르크메니스탄	카타르	호주	인도네시아	말레이시아	기타
수입	21.3	6.8	4.8	3.3	2.5	2.7
비중	51.4	16.4	11.6	8.0	6.0	6.6

자료: BP, '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', Jun. 2013

■ 시사점

-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증가
 - 중국은 서부지역 개발 및 자국의 부족분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할 수 있어,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
 - 특히,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는 매년 600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전망
- 장기적으로는 수입 PNG 및 LNG를 대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국의 셰일가스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
 - 중국은 증가하는 천연가스의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자국에 부존하는 막대한 셰일가스의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
 -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31.6조m³로 세계 1위를 차지



자료: BP, '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', Jun. 2013

참고자료

– Туркменистан стал крупнейшим поставщиком газа в Китай